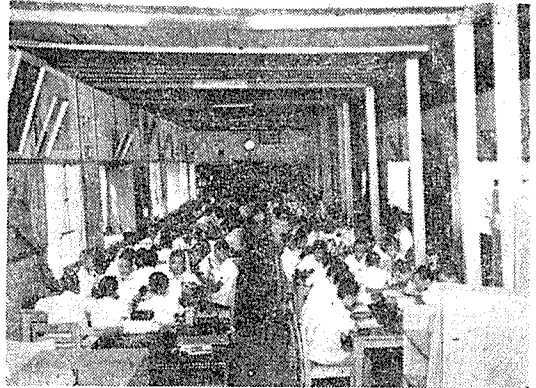


〈全國圖書館巡禮〉

# 馬山中學校圖書館

文 璣 榮

(馬山中學校司書教師)



〈閱覽室光景〉

## 1. 머릿말

全國圖書館大會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慶南이 全國에서 圖書館의 發展이 제법 앞서 있다고 들었으며 慶南一帶中에서도 比較的 馬山이 先覺地인양 느낌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結局은 全國에서 第一 앞선 곳이란 뜻이 內包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實相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馬山市內에 10餘個의 中高等學校가 있지만 本校는 市內에서 가장 中央地帶에 자리잡고 있으며 24學級으로서 1,500餘名の 在籍으로 完全 獨立된 圖書館을 保有한지는 滿二年이 조금 넘는다.

建坪 76坪에 座席이 156席이며 分類는 DDC를 사용하고 있다. 閱覽制度는 完全開架制로서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開館하며 放課後의 圖書館앞의 長蛇陣을 打開하기 爲해서 1學年과 2學年은 交代로 日課表를 6時間 或은 7時間으로 授業을 하고 있으며 3學年은 日課表에 8時間의 授業延長으로서 1時間마다 學年別로 繼續的으로 入館시켜 圖書館 入館의 混雜危機를 謀免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3學年은 土曜日에도 7時間의 授業을 하는 形便이다.

教室에서 教師의 知識을 傳達받고 그저 機械的으로 暗誦하는 教育方法으로서는 急變하는 文化發展에 따르지 못함은 現實로 봐서 切實한 事實이다.

學生들은 恒時 問題의 世界에서 問題解決에의 苦悶에 逢着하게 됨으로 이 問題解決의 열쇠는 두말 할 必要도 없이 圖書館인 것이다.

本校圖書館은 學校教育計劃의 中心部로서 名實共히 教師와 學生들의 學習場으로서 役割을 擔當하며 學校教育의 心臟部로 自處하면서 學生들의 人間形成과 教師의 教養 및 專門職으로서의 修養을 쌓는 道場으로 삼고 學生들의 問題解決의 學習場으로 利用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紹介되는 本校圖書館은 勿論 他校圖書館에서도 쉽게 實踐하고 있는 것은 可及的 省略하고 中心的

인 活動狀況과 研究部面만 紹介하고자 한다.

## 2. 活 動

連 2年間의 國語科 道指定 研究發表會를 거친 本校로서 圖書館과의 直結方案等으로 比較의 他職員들이 協力을 아끼지 아니 해 주기 때문에 圖書館의 運營活動이 活潑한 셈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再昨年度에 圖書館示範學校로 指定받아 上記한바와같이 그때의 施設로서 現在도 奉仕하고 있는데 約 2年前이나 지금이나 施設面에는 손을 댈 수 없을 程度로 完璧을 期한 셈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本校圖書館에서는 어디까지나 內部的인 面에만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자랑갈지만 率直한 告白이다. 卽어떻게 하면 圓滿한 圖書館運營을 企及하느냐가 問題인 것이다.

圖書委員은 24名인데 하루에 3名の 圖書委員이 일하고 있다. 아침 7시에 開館하며 入館手續은 簡單하다. 所持品台가 마련되어 있어 學生들이 所持品台에 所持品을 넣고 그 所持品에 備置되어 있는 代本板만 가지고 가면 入館手續은 完了되는 것이다.

勿論 代本板엔 番號가 적혀 있어 所持品台의 番號와 同一하다. 學生들은 이 代本板으로서 閱覽하고자하는 藏書를 마음대로 뽑고 그 자리에 代本板만 꽂아두면 된다. 그러므로 한번에 두권을 볼 수는 없지만 前後로 몇 권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른 學校圖書館에서는 叢書카아드 或은 북카아드를 꼭 記載시키고 있는데 勿論 長點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反面 短點이 長點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本校圖書館에서는 每週 火曜日만 카아드化시키고 그 外의 平日날은 使用하지 않는다. 本校圖書館에선 그저 火曜日분을 平均化하여 一個月 或은 1年分의 統計資料에만 그 影響을 미치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讀書指導의 細部的인 問題把握은 探究해 보지 못하는 實情이다. 다만 손쉽게 빨리 簡便하게

閱覽者가 閱覽할 수 있는 機會를 만들어 주기 爲한 것 으로 滿足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研究課題로서 統計的인 面에 長短點을 發見하여 그 比率을 알 고자 한다.

閱覽이 끝나면 學生들이 閱覽한 藏書를 그대로 뽑아 낸 書架에 가서 代本板과 바꾸어서 꽂는다. 그러므로 藏書의 섞갈림의 防止도 되고 圖書委員들의 努力도 덜 게되고 閱覽하고자 하는 趣味에 맞는 讀書를 할 수 있 는 것이다.

出館時에는 그 代本板을 가지고 所持品台에 가서 學 生들의 所持品과 바꾸어서 나가던 出入이 끝나는 것이 다. 勿論 入館時에는 教科書 筆記道具 雜記帳 以外엔 入館을 不許하지만 特別한 參考圖書는 事전에 圖書委 員에 알려서 出入을 許容하고 있다.

目錄은 辭典體로서 作成되어 있되 比較的 利用度가 낮은 便이다. 그러나 이것은 完全開架制인 까닭과 圖 書館教育으로 자주 圖書館에 드나들기 때문에 圖書의 位置와 圖書의 됨됨이를 잘 把握되었기 때문으로 안다.

### 3. 圖書館教育

圖書館教育의 必要性을 具體的으로 여기에 論하지 않 기로 하겠다. 다만 各種의 圖書館資料를 蒐集整理保存 하여 이를 教科學習活動의 展開 或은 健全한 趣味娛樂 의 育成에 이바지하는 圖書館資料와 圖書館利用에 關한 教育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昨年度부터 本校에선 學校時間表에 正式으로 插入하 여 圖書館教育을 1, 2學年에 限하여 1週 1時間씩 實施 해 오고 있다. 그러던중에 마침 慶南道教育委員會로부터 學校圖書館教育課程作成의 依頼를 받아 中學校圖書 館教育課程의 試案을 지난 5月 15日에 完了하였는데, 거기에 따라 教育化시키고 있다. (原案은 3學年까지)

本校에선 「학교도서관」이란 64面에 達하는 小冊子를 印刷發刊하여 도서관 교육으로서의 教科書化시키고 있 는 現狀이다.

內容은 圖書館의 움직임부터 視聽覺資料 圖書 修理 參考業務 辭典使用等으로서 教科學習과의 뒷받침을 특 히 強調하고 있다. 1年동안에 圖書館教育을 30時間 (2年間 60시간)을 施行하고 있는데 學生들도 相當히 趣味를 가지고 있다. 특히 問題가 되는 것은 文教部에 서 教育課程에 學校圖書館教育이 없기 때문에 評價의 處理問題에 困難을 받고 있는 것이다.

本校에서는 이를 綜合的으로 特別活動에다가 介意하 고 있지마는 하루 速히 文教當局에서 이 問題의 解決 方策이 樹立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學生들에게는 圖書 館에 對한 專門的인 學生이나 職員을 養成함이 目的이 아니기 때문에 分類나 目錄 等은 不過 卅時間 乃至 서

卅時間의 授業으로서 內容理解構成方案만 取扱하는 形 便이다.

### 4. 參考業務로서의 利用

參考業務의 概念은 學校에 따라 或은 司書教師에 따 라 解釋이 다르다. 그러므로 그 문제는 言及 않겠다. 本校에서는 今年度의 研究課題로서 實施하고 있음을 잠 간 紹介하겠다.

簡單히 말하자면 學生 或은 教職員들의 質問에 應하 는 方法인데 恒常 備置되어 있는 質問紙와 그리고 口 頭로서 應하게 되어 있고 그 質問의 內容이 殊 永久의 이거나 橫的이라도 他人에게도 影響이 미칠만한 問題 는 카아드化시켜서 辭典體化시켜 備置해 두고 있다.

그것도 亦是 問題와 主題等으로 나누어서 分類化하 여서 손쉽게 學生 或은 教職員이 찾을 수 있게 마련 시 켜다.

教科學習과 直接 或은 間接으로 關聯이 있기 때문에 相當한 利用度가 높은 便이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에 따른 圖書購入도 疎하고 있는 形便이다.

甚之於是 家庭에서 父兄들의 考試關係의 問題도 들 고 나와 相當한 問題를 가지고 있다.

이 參考業務의 年輪이 거듭될 수록 좋은 資料로서 本 校圖書館의 무게도 漸次 높아질 것으로 믿는다.

### 5. 其 他

#### ① 讀書會

讀書力이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活動力의 一 環임으로 生活에 必要한 圖書資料를 읽어 生活에 도움 을 주는 힘이라 할 수 있다. 故로 讀書의 條件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爲先 興味를 높이고 個別讀書와 集團 讀書를 뒷받침하고 아울러서 1個月에 1회씩 讀書會를 갖는다. 讀書會란 各部面別로 發表하고 批判을 加하여 보다 낯은 讀書를 疎하는 것이다.

#### ② 讀後感 文藝콩쿨

圖書館에서 教科書를 中心으로 공부하는 것과 圖書 館의 藏書(小說따위)를 中心하여 讀書하는 것과의 長 短點은 不問에 부치지만 主로 小說(本館所藏以外的 藏 書도 可)의 讀後感을 月 1回 應募하여서 施賞하는데 따 라서 좋은 作品은 每日 점심時間을 利用하여 公報班에 서 校內放送으로 1,500名의 귀를 기울이게 하고 있다.

#### ③ 非圖書資料利用

버어티칼 파일 카비네트가 두個 있는데 非圖書資料 가 무려 3,000餘點이 備置되어 있다. 學校에 따라 다 르지만 어느學校에선 이를 敎室에서 學習과 直結시 켜려고 苦心을 하고 있으나 本校에서는 疎 그렇지는 않 다. 圖書館에서 學生들로 하여금 손쉽게 閱覽할 수 있 게 마련되어 있다. 그에 따른 圖書委員이 專門的으로

取扱하여 奉仕하고 있다.

率直히 말해서 그림을 보는 程度로서도 滿足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다. 大概 이 資料는 新新聞紙를 學生들이 直接 蒐集하여 이것을 製紙工場과 連絡하여 製紙工場에 있는 여러가지 雜誌等の 必要部分을 切取하여서 그 新新聞의 무게와 切取한 것과 比較하여 交換하였으며 또 擔任先生들로 하여금 科目別로 蒐集하였다. 茶房이나 外部에서 가져다가 (必要한 資料) 備置시킨 일도 許多하다.

#### ④ 購入希望圖書簿

圖書館에 購入希望圖書簿를 恒時 備置하여 購入을 希望하는 圖書는 記載를 시키고 있다. 司書가 中心이 되어 敎務室에서 資料選定委員으로 하여금 選定하는 한편 學生들로서하여금 購入希望에 따라 資料選定委員會로 하여금 購入하게 하되 現在까지 豫算上 希望圖書의 約 70% 밖에 購入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 ⑤ 新聞綴과 雜誌

開館以後 오늘날까지 10種(開館時는 8種)의 新聞이 그대로 備置되어 있다. 學校內는 勿論이지만 地域社會人도 資料를 利用하고 있다.

이로 因하여 因緣이 맺어져서 圖書의 寄贈도 可能하게 될 일도 몇件 있다.

특히 經濟人들이 過去의 物價時勢같은 것을 알기 爲해서 利用도가 甚多했다. 또 雜誌는 10種을 購讀하고 있는데 이도 適當한 分量으로 製本하여 原簿에 올려서 書架에 備置하였는데 索引은 마련 안했지만 容易하게 볼 수 있게 마련되어 있다.

#### ⑥ 新入生圖書寄贈

新入學生들에게 再昨年度부터 祝賀條라는 이름을 붙여서 圖書를 한卷 以上 寄贈시키고 있다. 再昨年度엔 約 200卷 昨年度엔 約 300卷 今年度엔 400卷이 훨씬 넘었다. 勿論 여러가지로 隘路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是合格과 入學의 氣分으로서 一卷의 寄贈도 容易하지만 反面 協助를 하지 않은 學生도 있었다.

#### ⑦ 圖書貸出과 日曜開館

本館에선 土曜日 貸出과 隨時貸出의 2種類로 나누어서 貸出하고 있다.

土曜일은 下午 4時까지 貸出하고 있는 것은 3學年 授業의 延長關係도 있지만 午前 授業이 끝나 貸出이 可能하게 되면 敎室에서 圖書館에 이은 長蛇陣의 弊端을 없애기 爲해져서이다. 貸出의 混雜을 避해서 汽車通學生 約 100名에게는 午前中의 쉬는 時間에 貸出을 하는데 모두 月曜日中으로 返納을 要求하고 있다.

그리고 學生 代議員會議에서 日曜開館을 要求해 음으로 月 2회에 限하여서 開館을 하고 있으며 隨時貸出

은 敎科擔當敎師의 推薦等으로 行하고 있다.

#### ⑧ 地域社會人의 閱覽

圖書館週間과 讀書週間을 맞아 年 2회에 걸쳐서 地域社會人에게 圖書館 公開閱覽의 機會를 마련해 주고 있다. 그러나 學父兄들의 來館은 있으나 그저 「도서관 구경」程度이다. 오히려 本校 卒業生으로서 進學(高校或은 大學)의 準備공부로 利用하는 사람은 相當數에 達하였다.

#### ⑨ 放學中の 開館

겨울과 여름방학을 통하여 아침 9시부터 下午 4時까지 開館하였다. 冬季放學에는 燠爐를 準備하여 추위를 막아주고 있다.

그러나 圖書館이 바람맞이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燠爐程度로서는 크게 防寒을 못하고 있는 形便이다.

夏季放學도 開館을 하고 있지만 여름엔 또 더운 便이다. 그렇지만은 꾸준히 開館을 하고 있는것은 오로지 專門인 助務員의 奉仕精神의 發露라고 생각된다.

이 모든 條件은 本館이 市內의 中心地帶에 位置한 德分이라고도 할 수 있다.

### 6. 맺는 말

1년 동안에 10餘卷의 敎科書만으로 學生들의 學習活動을 돕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나라 中等敎育의 實情에서 생각해 볼때 너무나 絶望의인 여건임에 비추어 比較的 本校엔 낳은 便이라고 하겠다. 平均 1人當 3.5卷의 藏書를 保有하고 있으며 156席도 모두 國際的 標準規格인 備品으로 마련되어 있다.

本校 圖書館의 短點은 敎室(本館)에서 圖書館이 쏠 떨어져 있다. 即 運動場 건너 邊에 位置하고 있기 때문에 敎科學習과 의 直結面에는 어느程度 疎忽한 感을 招來하기 쉬운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옆쪽으로 舞鶴山 松林을 끼고 뒤에는 馬山高等學校가 보이며 한쪽엔 늡늡한 合浦바다를 내려다 보는 그 展望은 이곳 馬山中學校圖書館의 맛이라 하겠다.

특히 本校圖書館의 獎學視察次 本道 金斗弘獎學士님이 자주 오시며 昨年度엔 文敎部 圖書館獎學委員이며 梨大에 계시는 張一世先生님께서 한번 다녀 가셨고 그 외에도 文敎部 獎學官이 몇번 다녀 가신 일이 있다.

또 昨年 夏季放學中에(開館中인데) 韓國圖書館協會 李鍾文事務局長 그리고 亞細亞財團 副代表 「맥두갈」先生 님夫妻께서도 다녀 간 일이 있다.

완벽을 기한 圖書館 같으나 앞으로의 隘路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5,000卷(事實은 7月 10日 現在 4,911卷)이라지만 中學生用 圖書의 選定이란 容易하지 않은 것임은 두 말 할 必要조차 없다. 무엇보다도 中學生用의 適書備置의 滿足의 날을 苦待하면서…….